

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

(1996. 10. 20~11. 20)

10. 23

재정경제원 한국은행, 11월 8일부터 지준율 인하

- 은행 지준율을 평균 1.9%p 인하(7.4% → 5.5%)
- 지준율 한도 확대로 공급되는 2조 8,000억 원의 통화는 총액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흡수

10. 24

금융계, 대출 금리 인하

- 11월 8일부터 조흥, 한일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일반 대출 우대 금리(프라임레이트)를 8.75%에서 8.5%로 0.25%포인트 인하
- 상업, 제일, 서울은행 등 다른 시중 은행들도 우대 금리를 0.25%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

11. 1

재정경제원, '공기업 민영화' 방안 수정

- 담배인삼공사, 가스공사, 한국중공업 등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를 보류
- 경영권과 관계없는 소액의 지분과 중소 규모 공기업은 조속히 매각

11. 3

건설교통부, 중장기 택지 공급 계획 마련 중

- 수도권 개발 가능지 155 개 지구 가운데 1단계로 2,500만 평의 공공 택지를 개발하여,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
- 이는 同기간 중 수도권 전체 소요 택지 4,200만 평의 60%에 해당

11. 4

재정경제원, 사회간접자본(SOC) 민자 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

- 순공사비 5,000억 원 이상의 SOC 민자 참여 사업자에게 현금 차관 도입을 협용하고, 제도적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
- 이자 소득을 저울(15%)로 분리 과세하는 사회간접자본 채권을 1997년 초 발행

11. 6

정보통신부, 2차 民放 사업자 선정

- 인천 지역에 동양화학, 울산에 주리원백화점, 전주에 세풍, 청주에 뉴맥스를 선정
- 선정된 지역 민방은 1996년 말까지 자본금 납입, 법인 설립 등기 등을 마치고, 1997년 상반기 중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9월 시험 방송

11. 8

재정경제원, 주식 수요 기반 확충 계획 곧 발표

- 배당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, 고배당에 따르는 불이익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배당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
- 1997년부터 연기금 및 공제법인의 주식 투자 한도를 5~10% 이상 확대할 계획

11. 11

노동부, 노동법 개정시 재계 의견 반영

- 변형근로시간제는 주당 56 시간 한도 내에서 1 개월 단위로 시행
- 노조 전임자 급여에 대해선 사용자의 부당 행위로 규정하되 3 년간의 유예 기간 설정
- 복수 노조에 대해선 1997년부터 상급 단체만 허용하고, 기업 단위에 대해선 일정 기간의 경과 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 허용

11. 15

환경부, OECD의 환경정책위원회(EPOC) 규정을 2000년께 시행 검토

- 오염 물질 배출 업체나 지역간 오염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
- GNP에 환경 훼손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는 '그린 GNP'를 1997년 중 산출

11. 18

재정경제원, '10% 경쟁력 높이기' 실천 방안 마련

- 1997년부터 기업체가 영양사 등 특정 직종 자격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 완화
- 국산 기계 구입용 20억 달러를 포함하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35억 달러의 상업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

11. 19

해양수산부, 해양개발시행계획 확정 발표

- 1997년에 3조 236억 원을 들여 沿岸域통합관리체제 구축, 새로운 해양 공간 개발, 종합해양관측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